

행불자 어디로...“전교사 인근 암매장” 가능성

드러난 헬기사격

5·18 진실 밝히자

■ 암매장 제보지 발굴을

“새벽 2~4시쯤 됐을 겁니다. 송정리에서 경운기를 고치고 다리 건너 광주전을 따라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라이트도 켜지 않은 군용 트럭이 도로에서 광주전 아래로 달려가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툭, 툭 뭉가 쏟아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441명의 행방불명자(광주시는 81명만 인정)는 어디로 갔나. 5·18 당시 행방불명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묻혀있다.

지난 1980년 5월 21일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와 함께 37년간 풀리지 않은 5·18 핵심 의혹이 바로 ‘행불자와 암매장지’ 문제다. 행불자의 경우 5·18 당시 행방불명 내지 불법 연행·구금됐다가 되돌아온 사례는 연행·구금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결국 행불자는 암매장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해 “5·18 당시 전두교육사령부(상무대) 인근 광주전변이 희생자들의 암매장지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환(59·익산시)씨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는 라이트를 켜지 않은 군용 트럭과 천변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포크레인을 봤고, 아버지는 군인들을 보셨다”면서 “아버지가 입단속 하셔서 한참 동안 어디에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나 나나 시신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라이트도 켜지 않은 군용 트럭, 무언가 파고 있었던 포크

“라이트 안 켜 군용트럭과

땅 파는 포크레인 봤다” 제보

광주시 발굴 여부 수년째 검토

행불자 441명 원혼 달래줘야

레인들, 툭툭 떨어지는 소리에 미루어 아버지와 나는 ‘이놈들이 시신을 파묻고 있구나’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22일 현재 5·18 암매장지와 관련해 총